

정식품, 2억원 콩생육장 건립 후원

콩은 생육기간이 150~180일로 보통 5월에 파종하여 9월말이나 10월초에 수확하는 1년생 작물이다. 하지만 영주에 건립될 콩세계과학박물관에서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시도된다. 이름하여 콩 생육장. 박물관을 구경나온 관람객들에게 사시사철 콩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이다. 콩이 자라는 모습은 18단계로 보여지게 되며, 광원으로는 LED조명이 사용된다. 콩은 뿌리혹박테리아를 형성하여 질소를 고정하는 대표적인 '땅의 작물'인데 실내에서 키운다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인 일이다. 콩생육장 건립은 콩 육종분야의 지식이 총망라되어야 함은 물론,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IT기술이 접목되어야 가능하다. 콩생육장은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라는 자긍심도 높이고, 또 콩세계과학박물관의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말이면 생태, 환경적 교육기능을 갖춘 콩세계과학박물관이 경북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일대 3만㎡ 부지에 건평 3천㎡(약 1,000평)규모로 탄생된다. 박물관은 콩의 역사문화, 생태, 가공, 영양, 미래를 다루는 5개의 전시관과 체험관, 다목적실,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된다. 콩 생육장은 박물관 본관에서 연결통로로 이어지는 콩체험관 쪽의 로비에 설치된다.

콩생육장 건립 지원은 국내 최대 두유업체인 정식품이 후원한다. 정식품은 두유 생산업체로 두유의 원료가 되는 콩의 생육과정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자는 추진위의 부탁에 기꺼이 동의해 2억원을 내놓게 되었다. 사실 정식품과 콩세계과학박물관 추진위의 인연은 근 십여년이 넘었을 정도로 뿌리깊다. 정재원 명예회장은 현재 추진위의 고문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번 정식품의 콩생육장 건립후원은 정 명예회장이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의사였던 시절, 콩을 맷돌로 갈아 유당불내증을 치료하시던 그 첫 마음이 잘 발현된, 뜻 깊은 후원이라고 여겨진다.